

맞벌이 부부가족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mily Resources,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and Distress of Dual-Earner Families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高貞子

Dept of Home Management Dong A Univ.
Prof. : Ko Jung Ja

〈목 차〉

I. 서론	V. 논의
II. 이론적 배경	VI.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V. 결과해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esent an model of the distress process for dual-earner couples.

For the data set 340 husbands and wives in dual-earner families living in Pusan were chosen.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Family Stressor Scale, Family Resources Scale, Distress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statistical pacakage using t-test, the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d the path analysi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are higher for wife rather than husband. And cohesion, adaptability and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a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ress directly.

* "이 논문은 1993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생활하는 가운데 다양한 생활변화에 접하게 된다. 오늘날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개인들은 많은 적들간에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생활의 변화와 적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변화는 인간생활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에 대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심리적 손상과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은 부부의 역할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부관계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중역할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같이 가족문제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는 복잡한 사회속에서 중요문제로 관심이 고조되어 최근 스트레스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배경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개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적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분석하는데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가족특성, 건강, 사회적 지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트레스인지와 적응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의 하나로 가족자원이 지적되고 이에대한 연구를 시행한 결과 스트레스양과 가족자원의 수준이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cCubbin, 1979; Lazarus & Folkman, 1984; 전세경, 1988; 김영희, 1992). 즉 가족자원을 많이 소유하면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생활스트레스량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Rahe et al., 1964; 이평숙, 1984) 스트레스가 신체적·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스트레스의 연구에 있어서 가족자원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어

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족자원, 디스트레스 영역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질 뿐 이 영향변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것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차이를 규명한 것은 몇편(최동숙, 1989; 김영희, 1992; 현은민, 1993)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한 가정의 부부도 생활변화의 속도와 인지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에 역할기대와 수행간에 차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이중적인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맞벌이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한 가정의 부부쌍을 대상으로 부부의 신체적·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모형을 검증함으로써 부부 및 가족·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신체·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가족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가족자원은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신체적·심리적 디스트레스는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가정환경변인, 가족자원 및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디스트레스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자원

자원이란 가족체계의 목표나 요구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잠재력을 가진 요인으

로(Deacon and Firebaugh, 1988) 가족내 긴장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조절하며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cCubbin, 1979; Lazarus & Folkman, 1984; 전세경, 1988; 김영희, 1992). 따라서 가족자원은 스트레스 연구에 있어 중심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McCubbin(1980)은 가족자원으로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자원, 가족체계 내부자원, 사회적 지지, 그리고 대처행동의 4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전세경, 김양희(1989)는 가족자원변인을 개인심리적 자원, 가족체계자원, 사회적 지지자원, 경제적 자원으로 구성하였고, 조희선(1991)은 개인적 자원으로 SES, 가족체계 내부자원으로는 가족결속력, 외부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자원을 개인적 자원, 가족체계자원, 사회적 지지자원으로 구성하고, 개인적 자원으로 심리적 자원을 가족체계자원으로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적 자원은 잠재적이고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재정,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건강, 심리적 자원 등 4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Georgo, 1980). McCubbin, Wilson & Patterson(1979)은 4가지 요소외에 가평관리능력, 자립능력, 인지능력을 지적하였다. Pearlin과 Schooler(1978)는 이러한 요소중 심리적 자원이 긴장을 야기시키는 상황에서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자아긍정(self-esteem), 자아부정(self-dinogration), 숙달감 등 세가지로 구별하였다.

가족체계자원은 가족조직의 내부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Burr(1973)의 15개 자원중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두개의 요인만이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응집은 가족체계에서 개인의 연결과 분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Olson, Russell, Sprenkle(1983)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를 내리고 응집수준에 따라 유리, 분리, 연결, 밀착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적응은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단계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체계가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관계의 규칙

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변화능력의 정도에 따라 경직, 구조, 융통, 혼돈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족체계유형 중 응집이 적당히 낮게 분리된 가족이나 적당히 높게 연결된 가족일 때, 그리고 적응이 적당한 구조적 가족이나 융통적인 가족일 때 가족의 기능이 효과적이며, 상황적 스트레스와 변화에 잘 적응한다(Galvin & Bromml, 1986; Olson et al., 1983).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결과(김수연·김득성, 1993)에서는 응집과 적응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체계자원이 많을수록 가족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자원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중재하기 위한 사회적 교제를 위한 지지로서 친척, 친구,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상호자조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말한다.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존중감 지지(esteem support), 관계망 지지(network support)를 제공하는 개인상호간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정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심리적 상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 보다 상황에 잘 적응하게 할 수 있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접근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Selye(1956)는 최초로 인체에서 스트레스 적응을 측정하여 스트레스요인에 대한 유기체의 소모반응인 비특이적 반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유기체가 그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로 반작용하는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였다.

Meyer(1948)는 생활도표(life chart)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생활사건과 질병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Holmes와 Rahe(1967)는 생활사건을 개인생활유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스트레스원으로 생각하고 사회재적응 평가척도(SRRS)를 개발하여 스트레스의 양적측정을 시도하였다.

그후 McCubbin, Willson과 Patterson(1979)이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을 제작하여 가족스트레스 연구의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스트레스는 특수한 사건의 결과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에 의해 발생한 다양한 고통의 결과라 하고 이러한 긴장에 대해 가족이 반응하는 상태를 가족 스트레스라 하였다(McCubbin & Patterson, 1980).

가족스트레스는 생활하는 과정에서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인간생활에 대한 환경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자극모델, 반응모델, 상호작용모델의 3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정의를 내리고 특히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개인의 인지와 정서적인 특징을 환경내의 자극 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간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가족자원을 고려한 연구결과 스트레스는 자원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McCubbin, 1979; Lazarus, Folkman, 1984; Atkinson, 1992)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시간부족과 제약으로 인한 갈등이 대부분이며(고은숙·김명자, 1993) 아내가 남편보다 결혼생활에 덜 만족하며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내의 경우는 소득이 많고 비경제적 이유로 취업했을 때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규연, 1993). Thompson(1991)은 맞벌이 가족에서 남편의 가사참여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남편의 가사참여가 적을수록, 아내는 가사부담으로 인한 갈등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으며, 김순옥(1973)은 아내가 취업함으로써 아내 자신의 피로와 건강문제, 생활불만등이 쌓이고 가사일, 아내의 역할과 자녀 돌보기 등이 소홀하게 되어 남편들이 갈등을 느낄수 있다고 하였다(김순옥, 1973).

3. 디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스트레스(Eustress)와 부정적인 스트레스(Distress)로 구분하고 이중 디스트레스는 가족들이 유쾌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스트레스(McCubbin & Patterson)를 말한다. 이안나외(1991)에도 문제거리나 근심을 겪었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긴장 또는 고통스런 상태라고 하였다.

Selye(1975)는 어떤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소인 및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강도가 높을 때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디스트레스는 최근 많은 이론모델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Veit와 Weir에 의하면 정신건강은 부정적 정신건강 상태와 긍정적 정신건강 상태로 구분되며 긍정적 상태는 '심리적 복지'로 부정적 상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로서 '불안', '우울' 행동 및 '정서적 통제'의 상실'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신건강 연구에서는 이 두 요소 즉 심리적 복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다 포괄해야 한다고 하나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대표하는 개념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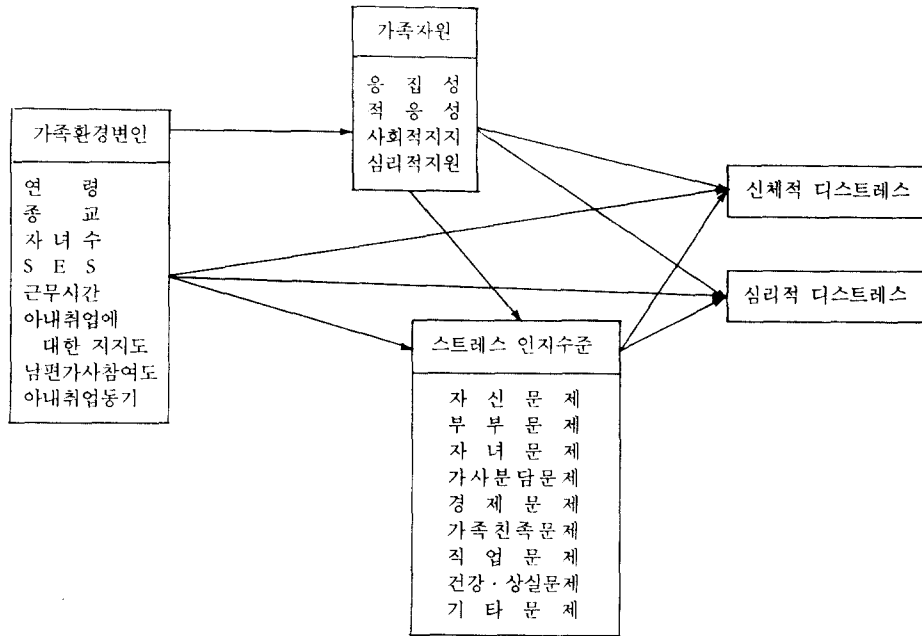
생활스트레스양은 신체건강, 정신건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이평숙, 1984) 신체적 증세는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다른 스트레스 증세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tlib, 1984; Thoits & Hannan, 1979).

이와같이 디스트레스는 주요한 역할내의 경험에서 초래되는 것이며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Stress이론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시내에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부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차례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는 중·고·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 20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내용을 자유기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문항을 추가하고 재구성하여 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4년 3월에 실시되었으며 표본은 자녀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임의 표집하였다.

질문지는 500부를 배부하여 378부가 회수되었고 부부중 한쪽 배우자의 설문지가 없는 경우와 내용기재가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 부부 34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가정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스트레스척도, 가족자원, 디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1) 스트레스척도

McCubbin, Willson & Patterson(1979)의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과 Homes와 Rahe(1967)의 SPRS(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이평숙(1984)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한 자유기술식 문항내용을 추가하여 남편은 104문항, 아내는 114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문항중 문항분석결과 $r = .40$ 이하의 문항을 삭제하고 남편은 76문항, 아내는 85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경험이 없다면 0점, 경험에 대한 부담이 심각하지 않으면 1점, 심각한 경우는 3점을 주었다. 스트레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

bach α 값이 남편 아내 모두 .95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각 스트레스 요인별 신뢰도계수는 다음과 같다.

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전혀 아니대에 1점, 거의 항상에 4점을 부여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

〈표 1〉 스트레스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

	자신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사부담 문제	경제 문제	가족·친족 문제	직업 문제	건강 상실	기타 문제	계
남편	.79	.74	.83	.79	.96	.73	.86	.67	.62	.956
아내	.63	.82	.74	.79	.75	.81	.82	.49	.49	.953

2) 가족자원

가족자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의 응집 및 적응평가척도와 McCubbin(1983)의 FIRM(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가족의 응집 및 적응평가척도(Family Cohesion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 III)는 Olson, Portner와 Laves(1985)가 제작한 부부용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응집성 10문항, 적응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과 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McCubbin의 FIRM중 사회적 지지와 개인 심리적 자원을 나타내는 문항을 선택하여 사회적 지지는 4문항 심리적 자원은 3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이 많음을 의미한다. 자원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89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역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가족자원의 신뢰도계수

	응집성	적응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자원	계
남편	.906	.786	.526	.799	.89
아내	.900	.809	.516	.841	.89

3) 디스트레스척도

Pearlin과 Johnson(1977)의 우울척도, Birkowity와 Perkins의 디스트레스척도 그리고 권경희(1985), 조희선(1991)의 연구를 참고로 신체적 디스트레스 10문항, 심리적 디스트레스 12문항 총22문항으로 구성

수록 디스트레스 정도가 심하다는 걸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2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디스트레스의 신뢰도계수

	신체적 디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	계
남편	.856	.896	.929
아내	.848	.895	.924

4. 자료분석

측정도구 작성을 위해서는 신뢰도와 문항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T-test, F-test(one-way ANOVA),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경로분석(path analysis)이 사용되었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IV. 결과해석

1.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일반적 경향

부부간의 스트레스 하위영역별 인지수준은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평점 3점 만점에 남편은 M=0.94,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구 분	빈 도	백분율
남 편 연 령	35세이하	69	20.3	아 내 연 령	30세이하	42	12.4
	36-40	73	21.5		31-35	63	18.5
	41-45	61	17.9		36-40	75	22.1
	46-50	56	16.5		41-45	67	19.7
	50세이상	81	23.8		46-50	56	16.5
				50세이상	37	10.9	
남 편 종 교	기독교	38	11.2	아 내 종 교	기독교	58	17.1
	천주교	32	9.4		천주교	35	10.3
	불 교	124	36.5		불 교	144	42.4
	무 교	146	18.4		무 교	102	30.0
남편 근무 시간	8시간	138	40.6	아내 근무 시간	8시간	54	15.9
	8-10시간	141	41.5		8-10시간	174	51.2
	10시간이상	61	17.9		10시간이상	110	32.4
자 녀 수	1명	81	23.8	SES	하	60	17.7
	2명	155	45.6		중	223	65.6
	3명이상	104	30.6		상	57	16.8

(표 5)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일반적 경향

하 위 영 역	남 편 M	아 내 M
자신문제	1.21	1.48
부부문제	0.72	1.17
자녀문제	0.96	1.16
가족·친족문제	0.5	1.0
가사부담문제	0.95	1.67
경제문제	0.96	1.26
직장문제	0.86	1.29
건강·상실문제	0.67	
기타	1.05	1.27
계	0.94	1.28

아내는 M=1.28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내가 남편보다 인지수준이 높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은 자신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아내는 가사부담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다음은 자신문제, 직장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가족자원의 차이

가족자원(응집성, 적응성, 심리적 자원, 사회적 지지)이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effe-test한 결과는 <표 6, 7>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남편의 경우 응집성은 연령, 자녀수, 사회경제적 지위, 가사참여도, 아내취업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이 30대인 가정이 50대인 가정보다, 자녀수가 적은 집단이 많은 집단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인 집단이 하 집단보다, 가사참여를 많이하는 남편이 참여하지 않는 남편보다, 아내취업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집단이 타 집단보다 가족간의 결속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종교, 남편의 가사참여도와 아내취업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를 가진 집단이 무교인 집단보다 아내의 취업에 대한 지지가 높은 남편이 사회적 지지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

〈표 6〉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가족자원의 차이(남편)

	구 분	응 집 성			적 응 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자원		
		M	F	Scheffé	M	F	Scheffé	M	F	Scheffé	M	F	Scheffé
연령	35세이하	35.94		A	15.51			10.41			10.52		
	36-40	35.63		A	20.86			10.64			10.74		
	41-45	34.31	3.86*		21.15	1.89		11.10	0.59		10.21	1.76	
	46-50	33.05			22.52			10.52			10.25		
	50세이상	31.54		B	20.93			10.31			9.61		
종교	기독교	35.05			19.55			12.26		A	10.79		
	천주교	34.25	1.60		20.63	1.16		11.69	11.76***	A	10.97	1.52	
	불교	32.81			21.59			11.03		A	10.01		
	무교	34.82			20.79			9.51		B	10.16		
자녀수	1명	37.77		A	20.78			10.87			11.12		A
	2명	34.65	22.30***	B	20.85	0.11		10.76	1.73		10.33	8.40***	B
	3명이상	30.34		C	21.15			10.09			9.47		C
SES	하	31.55		A	20.58			10.52			9.35		A
	중	34.52	3.54*	B	20.78	0.78		10.44	1.18		10.36	4.37*	B
	상	34.91			21.84			11.18			10.78		B
가사참여도	많음	36.89		A	21.11			11.30			11.0		
	조금	34.14	4.56*		21.33	1.38		10.74	3.47*		10.19	2.04	
	안함	32.60		B	20.09			9.93			10.03		
지지도	찬성	37.08		A	21.62			11.23		A	11.27		A
	보통	31.86	17.39***	B	20.45	1.46		9.98	5.94**	B	9.55	16.37***	B
	반대	32.79		B	20.50			10.88			9.64		C

* P<.05 ** P<.01 *** P<.001

A, B : 같은 문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

편의 가사참여도는 Scheffé-test결과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리적 자원은 자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내 취업에 대한 지지도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수와 지지도는 Scheffé-test결과 각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집단과 중 이상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가 적을수록, 지지도가 많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처해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에 의하면 아내의 경우 응집성은 자녀수, 교육수준, 취업동기, 지지도, 남편 가사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1명인 집단이 2명 이상인 집단보다,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의 집단이 고졸 이하의 집단보다, 남편이 가사참여를 많이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부인들보다 응집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자아발전을 위해 취업을 한 부인들의 가정이 가족간의 유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적응성은 연령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40대 집단에서 적응성이 높게 나타나 가족체계유형 중 하나인 응집성과는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종교와 가족의 지지도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종교가 있는 집단보다, 지지를 많

〈표 7〉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가족자원의 차이(아내)

	구분	응 집 성			적 응 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자원		
		M	F	Scheffe	M	F	Scheffe	M	F	Scheffe	M	F	Scheffe
연령	30세이하	35.27			18.26		A	10.33			10.62	1.23	
	31-35	35.35			20.84			10.62			9.90		
	36-40	36.01	2.24		21.44	3.99*		10.79	1.54		10.55		
	41-45	34.45			23.37		B	11.73			10.19		
	46-50	32.29			22.91		B	10.66			9.62		
	50세이상	32.43			20.87			10.35			9.54		
종교	기독교	34.97			22.50			11.52		A	10.34	1.11	
	천주교	35.54	2.28		23.57	.976		12.03	13.43***	A	10.83		
	불교	33.23			21.78			11.34		A	9.88		
	무교	35.71			21.41			9.25		B	10.03		
자녀수	1명	38.07		A	20.98			11.09			10.97		A
	2명	34.45	14.90***	B	21.19	1.33		10.86	0.67		10.12	6.56***	
	3명이상	31.88		B	22.37			10.55			9.41		B
교육수준	중졸이하	33.40		A	20.35			10.57			10.09		
	고졸	33.75	9.17***	A	21.98	2.64		10.38	0.87		9.82	7.65***	A
	대졸이상	37.87		B	22.87			10.93			11.25		B
취업동기	경제적												
	이유	33.26	-3.68***		21.19	-.71		10.66	-1.09		107.55	-20	
	자아발전	36.46			21.81			11.05			108.54		
지지도	많이 협조	37.15		A	21.89			11.55		A	101.61		A
	조금 협조	33.20	10.51***	B	21.20	.344		10.39	3.98**	B	99.38	7.28***	B
	반대	31.33		B	21.27			10.25			79.52		B
남편가사참여도	많음	37.07		A	21.96			11.51			99.36		A
	조금	35.18	7.81**	B	21.95	1.59		10.79	1.79		93.38	7.79***	B
	안함	32.35		B	20.59			10.52			72.44		B

* P<.05 ** P<.01 *** P<.001

A, B : 같은 문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

이 받는 집단이 조금 받는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자원은 자녀수와 교육수준, 가족의 지지도, 남편 가사 참여도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수가 많은 집단보다는 1명인 집단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그리고 지지도와 남편의 가사 참여도가 높은 가정의 주부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갈등상태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3.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남편과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분량분석(one-way ANOVA)에 의하여 검증하고 하위영역간에 차이유무를 Scheffe-test에 의해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남편의 스트레스 수준은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수, 근무시간, 아내취업에 대한

〈표 8〉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차이

	구 분	남 편				구 분	아 내		
		M	F	Scheffe			M	F	Scheffe
연 령	35세이하	54.85	7.25***	A	연 령	30세이하	86.00	7.48***	A B B B
	36-40	69.47		A		31-35	83.90		
	41-45	71.17		B		36-40	72.39		
	46-50	90.95				41-45	104.21		
	50세이상	72.90				46-50	100.60		
종 교	기독교	84.29	2.23		종 교	기독교	102.12	0.80	
	천주교	102.34				천주교	114.66		
	불교	98.63				불교	109.69		
	무교	88.49				무교	106.10		
자 녀 수	1명	83.20	4.36**	A	자 녀 수	1명	80.91	7.27***	A
	2명	92.20		B		2명	81.19		B
	3명이상	101.81		C		3명이상	103.68		B
SES	상	74.47	3.35*	B A	교육 수준	중졸이하	97.52	10.52***	A
	중	67.69				고졸	100.38		A
	하	80.90				대졸이상	78.06		B
가사 여도	많음	82.66	2.15		남편 가사 참여도	많음	72.44	7.79***	A
	조금	96.70				조금	93.38		B
	안함	90.91				안함	99.36		B
지 지 도	찬성	85.40	3.59*	A	지 지 도	많이 협조	79.52	7.28***	A
	보통	97.91		B		조금 협조	99.38		B
	반대	99.44				반대	101.61		B
					취업 동기	경제적 이유	107.55	-.20	
						자아발전	108.54		

* P<.05 ** P<.01 *** P<.001

A, B : 같은 문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

지지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의 연령은 30대보다 40대 후반에서, 자녀수는 3명 이상 집단에서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남편이 스트레스가 높았다. 아내취업에 대한 지지도는 Scheffe-test 결과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 아내의 취업을 반대하는 남편이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내의 경우는 연령, 자녀수, 교육수준, 취업에 대한 지지도, 남편 가사 참여도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이상의 집단이, 자녀수는 1명 집단과 2·3명 이상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취업주부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의 집단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으며, 가정에서의 취업에 대한 지지도와 남편 가사 참여도가 높은 집단과 그의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 지지도와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낮은 집단의 부인들이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4.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디스트레스의 차이

신체적 디스트레스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test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의하면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남편의 경우 연령변인에 따라 부인의 경우는 연령, 자녀수, 취업동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변인은 남편은 40대 후반 집단이, 아내는 40

대 초반 집단이 디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 집단과 3명 이상의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를 많이 둔 취업부인이 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동기별로 보면 경제적 이유로 취업한 경우가 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높았다.

<표 10>에 의하면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남편의 경우, 아내취업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표 9>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신체적 디스트레스의 차이

	구 분	남 편				구 분	아 내		
		M	F	Scheffé			M	F	Scheffé
연 령	35세이하	14.59	3.01*	A	연 령	30세이하	15.93	4.19***	A
	36-40	14.16				31-35	17.29		
	41-45	15.38				36-40	16.36		
	46-50	16.61				41-45	18.88		
	50세이상	15.60				46-50	18.27		
						50세이상	18.51		
종 교	기독교	14.55	1.89		종 교	기독교	16.64	1.79	
	천주교	16.78				천주교	18.77		
	불교	15.36				불교	17.42		
	무교	14.93				무교	17.76		
자 녀 수	1명	14.70	2.89		자 녀 수	1명	17.27	3.48*	A
	2명	14.91				2명	17.02		
	3명이상	16.06				3명이상	18.47		
SES	상	16.10	1.87		교육 수준	중졸이하	18.30	0.72	
	중	14.91				고졸	17.60		
	하	15.49				대졸이상	17.42		
가사 참여도	많음	14.77	2.28		남편 가사 참여도	많음	16.37	2.34	
	조금	14.91				조금	17.75		
	안함	15.99				안함	17.86		
지 지 도	찬성	14.81	.929		지 지 도	많이 협조	17.30	1.06	
	보통	15.47				조금 협조	17.42		
	반대	15.53				묵인	18.49		
					취업 동기	경제적 이유	18.06	2.75**	
						자아발전	16.70		

*P<.05 **P<.01 ***P<.001

A, B : 같은 문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

를 보여 아내취업을 찬성하는 남편들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의 경우는 취업동기와 남편 가사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이유로 취업한 경우와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낮은 경우 취업 부인들이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5. 인과모형 검증

신체적·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따라 변인들의 영향력을 회귀분석하여 그 경로를 도식화한 것은 <표 11>, <그림 2, 3>과 같다.

변인들간의 경로계수는 β 계수를 사용하였고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인만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2>에 의하면 남편의 신체적 디스트레스에

<표 10>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차이

	구 분	남 편				구 분	아 내		
		M	F	Scheffé			M	F	Scheffé
연령	35세이하	17.54	1.55		연령	30세이하	19.69	2.19	
	연 36-40	17.78				31-35	20.70		
	41-45	18.83				36-40	19.41		
	령 46-50	19.61				41-45	21.96		
	50세이상	18.69				46-50	21.61		
						50세이상	21.27		
종교	기독교	17.08	1.24		종교	기독교	19.29	2.13	
	종 천주교	18.91				천주교	22.03		
	교 불교	18.80				불교	20.78		
	무교	18.17				무교	21.12		
자녀수	1명	17.78	1.48		자녀수	1	20.67	2.31	
	2명	18.18				2	20.17		
	3명이상	19.03				3명이상	21.67		
SES	상	19.45	2.08		교육수준	중졸이하	22.00	2.83	
	중	17.96				고졸	21.00		
	하	18.68				대졸이상	19.81		
가사참여도	많음	16.94	2.45		남편가사참여도	많음	18.94	3.56*	A B
	조금	18.37				조금	21.13		
	안함	18.96				안함	21.12		
지지도	찬성	17.40	3.92*	A B	지지도	많이 협조	19.90	3.10*	
	보통	18.92				조금 협조	21.05		
	반대	19.29				반대	22.26		
					취업동기	경제적 이유 자아발전	21.46 19.65	2.99**	

*P<.05 **P<.01 *** <.001
A, B : 같은 문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

〈표 11〉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응집성	적응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자원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	β	β	β	β	β
남 편	연령	.017	.060	.043	.144	.286**	.116	.245**
	S E S	-.050	-.074	.064	.032	-.000	-.000	.044
	자녀수	.000	-.077	.142	-.444***	-.230*	-.269**	-.451***
	근무시간	.037	.112	.091	-.062	-.128*	-.017	-.000
	지지도	-.016	-.046	.011	-.136*	-.000	-.000	-.157*
	가사참여도	-.000	.030	-.055	-.097	-.060	-.108	-.000
	적응성	.073	.149*	.187**				
	응집성	-.292***	-.211**	.238**				
	사회적 지지	-.071	-.000	.129*				
	심리적 자원	.065	-.070	.044				
	스트레스	.224	.306***					
	R ²	.157	.198	.131	.198	.052	.051	.151
아 내	연령	-.013	.043	.099	.031	.177*	.246**	.080
	S E S	-.063	-.021	-.083	.132*	.017	.130*	.135*
	자녀수	-.000	-.111	.141	-.125	-.107	-.109	-.155
	근무시간	.120*	-.011	.036	.030	.017	-.015	-.044
	지지도	.049	-.086	.096	-.086	.000	.020	-.099
	가사참여도	.098	.037	.181**	-.150*	-.034	.020	-.064
	취업동기	.046	-.033	-.088	.045	.174*	.148*	-.026
	적응성	.142*	.089	.201***				
	응집성	-.189*	-.285***	-.216**				
	사회적 지지	-.000	-.028	.093				
	심리적 자원	-.043	-.064	-.066				
스트레스	.171**	.389***						
	R ²	.149	.312	.256	.090	.047	.105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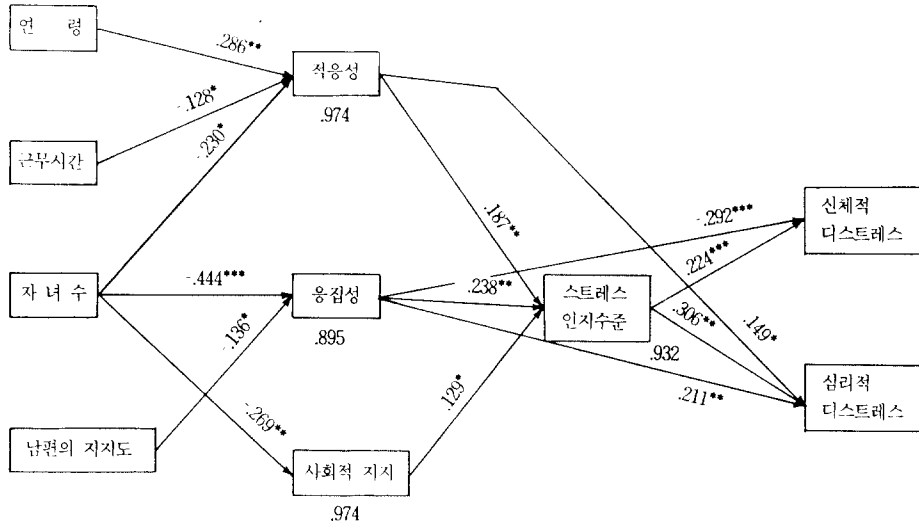
*P<.05 **P<.01 ***P<.001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응집성, 스트레스, 적응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16%였다. 즉 응집성이 낮으며, 적응성이 높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 디스트레스가 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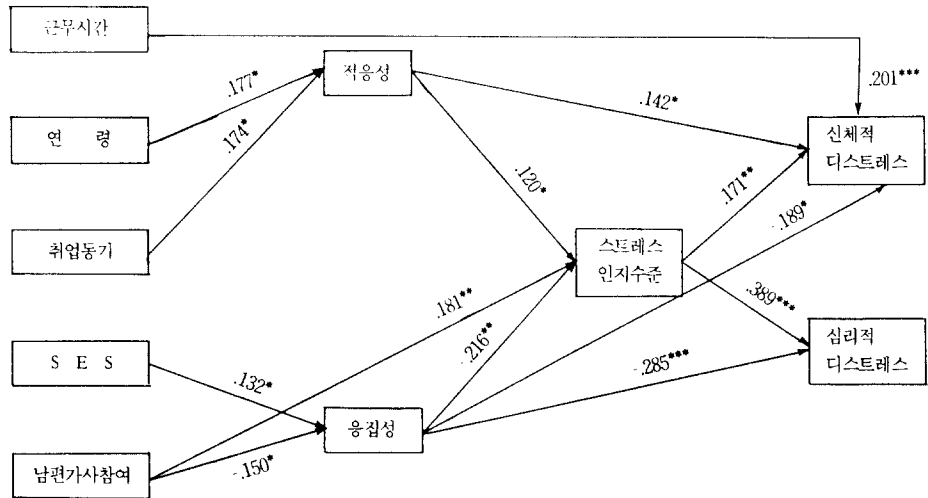
남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스트레스, 응집성, 적응성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0%였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응집성은 낮고, 적응성이 높을 때, 심

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과 근무시간은 적응성을 통하여, 남편의 지지도는 응집성을 통하여, 자녀수는 적응성, 사회적 지지, 응집성을 통하여 스트레스와 신체적·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응성, 사회적 지지, 응집성은 스트레스를 통하여 디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 의하면 아내의 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근무시간, 적응성,



〈그림 2〉 남편의 디스트레스에 대한 인과모형



〈그림 3〉 아내의 디스트레스에 대한 인과모형

응집성,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15%였으며 응집성이 신체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근무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가족의 적응성이 높고 응집성이 낮은 경우 주부들의 신체적 디스트레스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아내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스트레스, 응집성변인이었으며 스트레스는 $\beta = .389$ 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정도가 높았다. 즉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으며, 가족간의 결속력이 약한 경우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응성, 응집성, 아내의 취업에 대한 가족의 지지도변인과 남편의 가사 참여도 변인, 사회 경제적지위, 연령, 취업동기변인은 스트

레스를 통하여 신체적·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V. 논 의

1.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일반적 경향

부부의 스트레스 수준은 아내(M=1.28)가 남편(M=0.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ohrenwend(1973), Pearlin과 Schroler(1978), Boss(1985), 이평숙(1984), 최동숙(1989)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나 남편과 아내가 가족스트레스 인지에 차이가 없다고 한 정민자(1983)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아내의 경우 가사부담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자신문제, 직장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에서의 역할수행과 직장에서의 자아성취 욕구가 상충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는 역할기대보다는 다중역할에서 오는 역할갈등이라고 한 Hall(1972)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맞벌이 가정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가사조력자나 가사노동을 대처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하며, 남편외의 타 가족구성원이나 가까운 친척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가족자원의 차이

남편의 경우는 가족체계자원중 적응성은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30대와 자녀수가 1명인 집단에서,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가사참여도와 아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남편이 가족간의 응집성이 강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한편 아내의 경우는 자녀수가 1명이고 남편으로부터 가사조력과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며 자아발전을 위해 취업한 주부가 일체감이나 친밀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응성은 40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이 집단의 가족이 가족체계를 변화시킬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대 주부들의 적응성이 높

은 것은 중년기의 개별화(individuation)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자원은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여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자원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적 자원은 자녀수와 사회경제적 지지, 남편의 가사참여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자녀수가 적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때, 시간적·정신적·경제적으로 생활에 안정하게 되므로 개인에게 직면하는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디스트레스의 차이

가정환경변인중 연령변인은 남편, 아내 모두 30대보다 40대에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취업부부의 경우 연령이 높을 때 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고은숙·김명자(1993)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40대에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량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 시기에 발병할 수 있는 성인병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수 변인은 자녀수가 많은 경우(3명 이상) 남편과 부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동숙(1989), 김영아·이정우(1990), 이안나(1991)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부인의 경우 심리적 디스트레스와는 차이가 없었으나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자녀수가 3명 이상일 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부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권경희(1985)의 연구와 일치한다. 자녀수가 많은 것은 자녀양육과 교육에 과중한 역할을 필요로 하므로 역할긴장 특히 모성역할에 대한 긴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녀수와 취업은 부적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부의 교육수준 변인에서는 고졸 이하의 집단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보다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았다. 이는 학력이 낮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

한다는 Core & Mangione(1983), 장병옥(1985), 김경아·이정우(1990)의 연구와 일치하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한 Jalowiec & Power(1981), 이광주(1988)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주부의 취업동기변인에서 자아발전을 위해서 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경우 신체적·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업을 갖기를 위해서 취업한 주부가 갈등을 적게 경험한다고 한 Ross, Mirowsky & Huber(1983)의 연구와 직업에 만족할수록 갈등에 적응을 잘 하게 된다는 Kelly & Voydanoff(1985)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자아발전을 위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는 자신이 직업에 종사하므로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직장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가정내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체적·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내의 취업에 대한 가족의 지지도 변인에서는 지지도가 높은 경우에 부인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남편 또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편의 정서적 지원이 취업주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이기영·구혜령(199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부인의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가 가사부담의 인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는 고은숙·김명자(1993)의 연구와 일치하며, 여성의 만족도가 남편의 가정에서 성실성 및 노력에 비례한다는 손덕수·이미경(1993)의 연구결과와 남편들의 가사조력에 따라 아내의 스트레스 수준이 관리될 수 있다고 한 결과(Houseknecht, Vanghan & Macke, 1984)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취업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생활의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가족의 협조가 없을 경우 특히 가사노동에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정서적 지지나 가족구성원들의 가사조력 등의 협조가 있을 경우 주부의 취업은 오히려 주부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인과모형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과모형의 변인중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디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의 양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이평숙(1984)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가족자원중 적응성, 응집성 변인은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집성이 낮으며 적응성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이와같이 가족자원(적응성, 응집성, 심리적 자원, 사회적 지지)중 가족체계 자원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보아 가족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가족체계자원이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중 적응성보다 응집성이 설명력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가족간의 유대와 결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응집성이 보다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선행연구에 의하면(Galvin & Brommel, 1986; Olson et al.(1983)) 응집이 적당히 분리된 가족이나 적당히 높게 연결된 가족이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며 적응이 매우 낮거나 높은 가족은 역기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적응성과 응집성의 수준에 따라 가족체계를 분류하지 않았으므로 가족체계수준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족체계 유형별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가 공통적으로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응집성과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즉 응집성이 낮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높았다. 그러나 적응성과 근무시간 변인의 경우 성차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남편의 경우 적응성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내의 경우는 근무시간과 적응성이 신

체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간의 적응성이 높은 가정의 남편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아내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길고 적응성이 높을 때 신체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외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남편의 가사참여도, 아내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 자녀수, 취업동기, 근무시간 변인들은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다른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편의 경우 자녀수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내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지위, 남편의 가사참여도, 아내 취업에 대한 지지도, 취업동기 변인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은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성이 높았고 지위가 낮을때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과 스트레스는 역비례한다는 Dohrenwend(1973), 이평숙(1984), 김경아·이정우(199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은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불안정한 생활사건을 경험하기가 쉬우며 이로인해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편의 가사참여도, 지지도, 취업동기 등이 스트레스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통해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남편의 정서적 지원이 높으며 주부가 자발적인 동기에서 취업을 하게 될 경우 갈등을 적게 경험한다는 이기영·구혜령(1992)의 연구와 여성이 재정적 압박으로 취업을 하면 긴장이 증가한다는 Orden & Bradburn(196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부인의 취업에 따른 부부역할의 재구조화와 관련된 특성이 부부의 결혼만족과 우울증을 좌우한다고 한 최규련(199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과 부인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의 인지수준을 비교·분석하고, 이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가족문제 해결과 신체적·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아내가 남편보다 높았다. 하위영역별로는 남편은 자신문제, 경제, 자녀문제의 순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가사부담문제, 자신문제, 직장문제의 순으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았다.

둘째, 응집성은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30대 집단과 자녀수가 적으며 남편의 정서적 지원과 가사참여가 높을 경우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자아발전을 위해 취업한 주부들이 가족결속력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40대 집단의 취업주부들이 가족의 적응성을 높이 인지하고 있으며, 종교가 있는 집단과 아내취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집단이 사회적 지지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자원은 자녀수가 적으며 남편의 지지와 가사참여가 많은 경우 생활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남편의 경우 자녀수가 많으며, 아내의 취업을 반대하는 남편이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았으며 부인은 자녀수가 2명이상의 집단과 남편의 지지와 가사참여도가 낮은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부부 모두 40대에서 높았으며 자녀가 많고 경제적 이유로 취업한 주부들이 디스트레스가 높았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서는 아내의 취업을 반대하는 남편과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낮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주부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다섯째,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모형을 검증한 결과 응집성, 적응성,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신체적·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외 연령, 근무시간, 남편의 지지도, 남편의 가사참여도, 주부의 취업동기, 사회경제적 변인이 가족자원과 스트레스를 통하여 디스

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에서 가족자원중 가족체계자원이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매개변수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디스트레스 정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로 밝혀졌다.

또한 디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에서 부부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의 부부를 쌍으로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같은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응답의 정확성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며 취업지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취업지위별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자를 부산지역에 거주하며 자녀교육기에 있는 가정의 부부로 한정시켰으므로 확대해석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자를 다른 가족생활주기와 타지역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질문지법과 사례연구방법이 병행된다면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취업·비취업 부부의 비교연구,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남편의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한 연구와 자녀를 포함한 연구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전이와 부부간의 스트레스전이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은숙·김명자(1993),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45-60.
- 2) 권경희(1985), "한국 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경아·이정우(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stress수준 및 관련변인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01-118.
- 4) 김득성·김수연(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5)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김양희·전세경(1989),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139-158.
- 7) 김영희(1992), "맞벌이 부부가족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 긴장에 관한 이론적 모델 연구: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0(2), 139-158.
- 8) 옥선화·정민자(1984),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79-92.
- 9) 이기영·구혜령(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 갈등과 갈등대처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99-112.
- 10) 이안나·신효식·우희정(1991),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37-153.
- 11)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전세경(1988),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전영자(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4.
- 14) 정민자(1992), "임상-정상가족의 가족체계 유형

- 및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과 대응책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189-218.
- 15)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6) 최동숙(1989),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65-179.
 - 17) Bill & Vonette Bright(1990), “Managing Stress in Marriage”, Here’s Life Publishers.
 - 18) Brent C. Miller & Donna L. Sollie(1980), “Normal Stresses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Family Relations, 29, 459-465.
 - 19)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 20) Colleen S. Bell, James E. Johnson, Ann V. McGillicuddy-delisi, and Irving E. Sigel(1980), “Normative Stress and Young Families : Adaptation and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29, 453-458.
 - 22) David Lewis(1992), “Stress for Success”, New York : Carroll & Graf Pubilshers, Inc.
 - 23) David Reiss & Mary Ellen Oliveri(1980), “Family Paradigm and Family Coping : A Proposal for Linking the Family’s intrinsic Adaptive Capacities to its Responsness to Stress”, Family Relations, 29, 431-444.
 - 23)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s Management-Principles and Application”, Boston : Allyn & Bocon.
 - 24) Dohrenwend, B. S.(1973), “Live events as stressors:A methodological inquiry”, Journal of Health and Emocial Behavior, 14, 167-175.
 - 25) Donald G.Unger & Douglas R.Powell(1980), “Supporting Families Under Stress : The Role of Social Networks”, Family Relations, 29, 566-574.
 - 26) Galvin & Brommel(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 change, 2nd edition, Scott : Foresman & Company.
 - 27) Georgo, L.(1980), “Role Transitions in Later Life”, Books/Cole, Belmont, California.
 - 28) Holmes, T. H. &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9.
 - 29) Houseknecht, S. V., Vaughan, S. & Macke, A. S.(1984), “Marital Disruption among Professional Women :The Timing of career and Family Events”, Social Problems, 31(3), 26-30.
 - 30) Joe F. Pittman, Sally A. Lloyd(1988), “Quality of Family Life, Social Support, and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53-67.
 - 31) Kelly, R. F. & Voydanoff, P.(1985), “Work/family strain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34.
 - 32) Lawrence A. Kurdex(1989),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First-Married and Remarried Newlyw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047-1052.
 - 33) Lazarus, R. S. & Folkmans,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iishing Company.
 - 34) McCubbin, H. I.(1979), “Interating coping behavior in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237-244.
 - 35) McCubbin, H. I., Wilson, L. & Patterson, J. (1979),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St.Paul, Minnesota : Family Social Science, the Untversity of Minnesota.
 - 36) Martha Davis, Elezabeth Robbins Eshelman, Matthew McKay(1988), “The Relaxation & Stress Reduction Workbook”, New Harbinger Publication, Inc.
 - 37) McCubbin, H. I., et al.(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55-871.
 - 38) Nlall Bolger, Anita Delongis, Ronald C.Kessler, Elaine Wethington, “The Contagion of Stress Across Multiple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 the Family.
- 39) Olson, Russel. & Sprenkle(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40) Orden, S. R. & Bradburn, n.(1969), "Working Wives and Marital Happi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4(4).
- 41) Pearlin, L. 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anal of Health and Social Bihavior*, 19.
- 42) Ross, C. E., Mirowsky, J. & Huber, J.(1983), "Dividing work, sharing work, and In-betwe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 43) Stephen A.Anderson(1988), "Parental Stress and Coping During the Leaving Home Transtion", *Family Relations*, 37, 160-165.
- 44) Voydanoff, P.(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 45) Voydanoff, P. & Kelly, R. E.(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6.
- 46) Walter McQuade and Ann Aikman(1993), "Stress", *A Signet Book*.